

게리 예이츠 박사, 제12권, 30회, 말라기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에 대한 그의 마지막 세션인 30번째 세션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12장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말라기서에 대한 마지막 수업에 초점을 맞추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내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모든 영상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가 마침내 끝났다고 웃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말을 마치고 이 12권의 책을 보면서 말라기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좀 더 기쁜 결심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장의 시작 부분에 우리의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엔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깨진 결혼 생활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위기, 바빌로니아 위기, 포로기 이후까지 400년간의 예언 활동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모든 일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이 시점에서 주님께 돌아왔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포로 생활 이후의 공동체를 보면 그들이 종종 그들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없습니까? 글썄,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죄와 불순종과의 투쟁은 우리 경험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결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12장을 시작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의 시작 부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포로기 이후에 사역하던 말라기는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장인 이 드라마에 대한 해결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의 관계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 모든 일을 겪게 하신 후에도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전히 있지 못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 올바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이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배교를 고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에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내가 내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그들의 죄를 없이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책의 마지막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궁극적인 회복을 종말론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다시 불러일으킬 선지자를 일으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의 마지막 선지자이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38년에 하고, 기원전 520년에 성전 재건을 마치고, 515년에 봉헌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 치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람들에게 영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 일은 458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445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행하고 52일 만에 그것을 성취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유다의 총독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내 영적인 밀물과 썰물이 있었고 사람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열중하다가도 그 일에 동요합니다.

뒤쪽 버너에 올려져 있습니다. 성전은 15년 동안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에게 도전하자 그들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영적 갱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요엘의 예언을 보면 기원전 500년쯤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적 불안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야 하고, 더 많은 군대를 보내어 침략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심판과 멸망을 다시 반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율법을 읽어 주고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갱신과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배교의 문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을 온전히 써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라기가 이 짧은 책에서 예언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 직면할 때 사람들의 완고함에서 그것을 확실히 봅니다.

말라기는 어디에 있으며, 말라기라는 이름은 단순히 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라기의 실제 개인 이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에게 부여된 칭호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라기는 언제 사역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 중 일부는 말라기가 458년에서 445년 사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루었던 문제와 여러 면에서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 다루게 될 외국인과의 통혼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3장에서 다루게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체를 재활용합니다. 사람들이 십일조를 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자 지도자로서 이에 대해 백성들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는 백성들이 십일조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포로 이후 공동체가 겪었던 재정적인 문제와 궁핍과 가난을 고려하면 우리는 그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유배되기 전 8세기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동일한 죄 중 일부는 그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미래에는 국민을 향한 심판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술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삯을 억누르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그것은 총독 느헤미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벽을 다시 쌓고 이것을 이루고 52일 만에 이룬다고 해도 유력자들이나 더 부유한 자들이 억압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이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사역의 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것이 아마도 말라기 사역의 가장 좋은 시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직전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로 인한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사역한 선지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그를 기원전 400년으로 날짜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썰물과

흐름이 있는 이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되돌아가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스스로 순환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있고 누군가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한 후에도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셨고 그들은 과거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우리는 그를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시기 사이,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근처 또는 그 직후인 기원전 400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말라기의 사역은 이스라엘 땅의 고전 선지자들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세레 요한의 예언적 사역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또 다른 예언적 음성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선지자들의 축복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으며 선지자 직분이 본질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서 1장 9장 27절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말라기는 그 종말을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로의 큰 돌이킴과 부흥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과거의 교훈을 배우는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문제는 주님께서 아직도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스가랴의 예언과 말라기의 예언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주님께서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스가랴 1장 6절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선지자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회개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도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지속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서 말라기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요구했던 동일한 회개의 메시지, 동일한 문제, 동일한 회개의 필요성은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라기의 사역에서도 실제였습니다.

요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절기를 거룩하게 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반응했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반역적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메시지가 취하는 장르와 구체적인 형식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균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의 주요 예언 장르는 우리가 토론 연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결혼생활이 회복됐나요? 아니요, 여기서 말라기는 거의 결혼 상담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논쟁이 있고 그들이 선지자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가 그들에게 말할 때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종의 냉소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것입니다.

나는 첫 번째 논쟁에서 당신을 사랑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 전체에서 이런 종류의 예언적 논쟁을 봅니다. 이 책에는 또다시 파탄된 결혼 생활이 나오는데, 말라기는 이 남편과 소원해진 아내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 나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논쟁을 반영하는 선지자의 다른 구절을 보고 싶다면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선지자가 청중의 실제 또는 상상의 반대에 관여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진실성.

이제 말라기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반항적이고 뻔뻔스럽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의를 무뎌뎌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선지자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잘못된 믿음이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에스겔 18장에는 논쟁의 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우리 이가 시다고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실제적인 반대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아버지는 죄 많은 아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죄 많은 아버지는 의로운 아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에 논쟁의 예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의 대의는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림을 제시하며, 아니 여호와께서 그의 작업대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이길 만큼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는 나라들이 양동이 속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은 이 약속에 반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일종의 예언적 논쟁과 언약적 소송이 결합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영적인 간음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불충실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우상 숭배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돌아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을 숭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는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 전체에 걸쳐 선지자와 백성 사이에 논쟁과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러한 대화와 그러한 유형의 대화는 실제로 말라기서 전체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장의 이상한 결론은 호세아서에서 깨진 결혼 관계, 사람들의 회개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또 다른 예언서 한 권을 언급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12서의 다른 책 중 하나에서 볼 수 있는 내용과의 대조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서와 말라기서의 대조에 주목하십시오. 하박국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실한 종의 질문을 대표합니다. 그는 “하나님, 이 땅의 악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솔직하고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그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의심과 탄식,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말라기서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너는 나에게 짐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일종의 경건한 사람들인데, 글썄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부담이 되었나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신앙인의 질문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반역, 냉소, 의심, 심지어 무관심까지 커지는 질문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지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지 알 수 없는 지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논쟁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분쟁은 분쟁입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회복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언할 것 중 하나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헤세드로 너를 그린 방식으로 내 사랑이 나타났느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불충실하셨다고 비난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냉소주의, 의심, 회의주의, 불신, 반역으로 인해 그들은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그들은 이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부족한 문제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12장 책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불성실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것이 일종의 폭발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커플을 다루는 결혼 상담사가 되어 보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음 질문을 상기시켜 주시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은 그들의 운명과 에돔 나라의 운명을 그들과 대조시키실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의 형 에서는 아니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의 산간 지방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기업을 사막의 자갈들에게 맡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요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받는 모든 심판 가운데서 보존하였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이다.

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질문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1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리아인들이 와서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추방과 추방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온갖 종류의 언약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이 파괴와 황폐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최근 나바테아인들이 에돔인들을 그 땅에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들은 소생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겪은 지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관계가 어떻게 여전히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재확인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으며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예배를 가져오고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신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의 종류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예언적 시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으며 어떻게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했나요? 선지자가 제기하려는 문제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종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이름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신이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 부적절한 희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희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름발이 동물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구가 된 동물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가져갑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는 너희가 주님께 드리는 제물과 희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너희가 생각하는 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8절, 너희가 눈 먼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이 악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다리 저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냐? 주지사에게 제출하세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까요? 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당신에게 축복을 보여주지 않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경배하고 제물과 예물을 바쳤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총독이 받아들이지 않을 불량한 제물을 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반영합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이 주제를 추적해 보면 우리는 거의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 떼의 첫 열매를 가져오며 더 나은 제물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벨은 최고의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희생을 바칠 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할 때, 그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존중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반영하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이 이방인 가운데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 그 때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 세계에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며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존경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말라기는 지금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 신이 바로 그 신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제 13절을 보면 또 다른 문제는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여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와 아모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우리는 바로 그 특정한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의식을 행하지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압제받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에 대해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빼앗긴 것이나 절름발이, 병든 것을 가져오되 이것을 예물로 가져오 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그들이 결함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웃에게서 빼앗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모스의 말에 이끌렸습니다. “네가 주님께 경배하러 들어와서, 밤마다 그에게 돌아오기로 한 이웃에게서 전당잡은 옷 위에 누우라.” 너희가

성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축하의 포도주를 마시고, 가난한 이웃에게 부과한 무거운 벌금으로 너희가 취한 포도주가 바로 이 포도주이다. 그러면 그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멸시를 어떻게 반영해 왔습니까? 그들은 그에게 결함이 있는 희생을 바쳤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그들이 공언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두 번째 논쟁에는 부패한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2장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특히 사제가 적절한 지도력의 위치를 차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애초에 포로가 온 이유는 이스라엘에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글썄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사장의 올바른 지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논쟁입니다.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에는 세 번째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배 문제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그에게 불충실했다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우리가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나요? 그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과 포로 이후 공동체의 불신앙입니다. 불성실하거나 배신적이라는 단어인 바가 트(bagath) 라는 단어는 세 번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당신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구체적인 방식은 그들의 행위와 결혼에 관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심적인 통로입니다. 어려운 통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제기하지 않을 몇 가지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문제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충실함은 그들의 예배 관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행에서도 다시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결혼과 관련하여 그들이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아님을 입증한 두 가지 영역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2장 11절의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두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장 11절.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마련하셨고, 주님께서서는 그 성소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성소를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이 결혼 관계를 누리려고 하다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혼 문제,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혼 문제는 분명히 여기에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호세아서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혼합주의나 다른 신들과 우상들의 유혹이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외국인과의 내적 결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인종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성경적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그러한 종류의 결혼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즉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기된 것과 같은 문제는 그들이 이 거짓 신들에게 헌신했을 때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과 7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3장 6절과 7절). 그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내 말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 이에 대한 주요 경고는 솔로몬의 삶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는 이방 여인들 중 많은 사람과 결혼했고, 결국 그의 마음을 이 거짓 신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결혼이 거짓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 문제가 포로기 이후 초기에 해결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데 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신들의 아내들과의 혼인으로 인한 혼합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께만 헌신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누리셔야 할 관계는 성소와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방 신들의 아내들을 데려오고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다시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타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포로 생활에 비추어 볼 때, 북쪽과 남쪽 왕국 모두에 일어난 일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또 다른 해석은 일부 주석가들이 유다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하는 이 구절을 해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예레미야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시대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아세라와 같은 이교 여신 숭배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대부분과 2장 13절 이하에서는 실제 결혼과 이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 전체가 실제 결혼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여기서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잠재적인 타협입니다.

이제 이 동일한 문제가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에스라는 상당히 심각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타국인 아내와 이혼하고 심지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내보낼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그를 편견과 편협함,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등의 모든 일을 한다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지도자로서 혼합주의와 거짓 예배와의 타협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 문제와 그 잠재적인 문제는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뒤에 있습니다. 이 여성들을 내보내야 하고, 당신의 아이들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계획이나 하나님의 정상적인 계획이 아니지만, 이 특정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야, 문제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 시절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13장 23절에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과 결혼한 유대인과 그 자녀의 절반이 아스돗 방언을 말하는 것도 보니 그들이 유다 방언은 못하고 각 민족의 방언만 할 뿐이더라. 나는 그들에게 맞서고, 욕하고, 몇 명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만이 미친 광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외국인 아내들을 데려가는 타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주로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유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특정한 국가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서 문제는 그들의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언약에 불충실한 자들이며, 너희가 언약에 불충실한 것은 너희가 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는 것이다. 이제 결혼과 관련하여 다루게 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이자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어려서 취한 아내와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신과 당신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와 이혼하여 버렸으며, 내 생각에는 그들이 앞부분에 언급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아내가 이혼한 것과 이방 신들의 아내를 취한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느니라. 아마도 그 이유와 동기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이 그들이 그 가족에 속한 땅을 소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약혼했던 아내들을 없애고, 돌아와서 더 많은 땅을 얻을 목적으로 통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과 그들이 결혼 언약을 배반한 것을 주님과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보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결혼과 우리가 결혼에서 하는 약속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히 일깨워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결혼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두 당사자가 동의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이제 이 구절의 매우 잘 알려진 구절인 16절과 관련된 번역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해석적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혼을 미워한다는 진술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는 이혼, 제삼자를 미워하고, 제삼자, 즉 이혼을 미워하는 자는 폭력으로 자기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미움과 이혼에 대한 언급은 주님에 대한 언급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마도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외국인 아내들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한 남편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절이 읽고 있거나 말하고 있는 것, 어쩌면 본문에서 뭔가 빠졌거나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미워하는 사람, 즉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전체에서 미움이라는 단어가 사랑받지 못한 아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잠언 30장 창세기 에는 레아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를 미워하는 남편들이 바로 이혼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폭력으로 덮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대한 또 다른 반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쫓아내고 자신의 계약을 지키지 않으므로써 학대하고 학대하는 남자는 개인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약속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사회적 불의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안녕과 생계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결혼 성약에 대한 불충실함은 궁극적으로 결혼 생활과 주님과과의 성약에 대한 불충실함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 반영되었습니다.

앤드류 힐(Andrew Hill)은 말라기 주석에서 이 구절에 반영된 이혼에 대한 예언적 이해와 대략 같은 기간에 있었던 엘레판틴 유대인 공동체의 이혼 관행을 대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 집단이었던 엘레판틴 공동체에서는 결혼을 엄격한 계약적 의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 그룹인 엘레판티네(Elephantine)에서 가져온 문서에서 결혼 문제는 정절이나 결혼에 대한 헌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참금과 신부 가격, 재산권 및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계약상의 문제로 관계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엘레판티네에서의 결혼 관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24장은 남자가 아내에게서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발견하고 간음한 것이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남자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는 포로기 이후 상당히 초기에 다뤄진 문제였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위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주님께 대한 그들의 불충실함을 반영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선지서에 관한 이번 일련의 강의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에 관한 명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 신들을 숭배했는가? 왜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참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끊임없이 멀어졌습니까? 우리에게 명백히 거짓인 것을 그들이 어떻게 진실인 것에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작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상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결코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고 충성을 요구하지도 않으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열정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말할 수 없이 위험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시대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길들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내 생각엔 아마도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시 혼합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를 예배하고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나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과 관계에 대한 충실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비난과 비난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피곤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대변인이 당신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람들로 부터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려는 것은 백성들이 그에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지치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지치게 한 방식은 그들이 도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태도와 무관심으로 인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상을 주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응답은 주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얼마나 최악인지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라기와 같은 말이지만 지금 우리는 미래의 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인 말라기의 역할은 이 종말론적 선지자를 예상하며 그는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로 길을 예비하신 후에 너희가 구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오시며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구절의 평행성에 비추어 볼 때, 주님과 언약의 사자는 둘 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말론적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이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우리가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그 성전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느 날 나는 돌아올 것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경고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화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은을 깨끗하게 하며 연단하는 자와 같이 앉아 백성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의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 맹세를 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그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이 십일조를 내지 않는 문제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몇 분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꾸짖어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시니라

주님, 저는 당신을 다시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나를 시험하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네가 저주를 받는 이유와 내 것을 빼앗은 이유, 내 것을 빼앗은 방식이 십일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장 일꾼들과 레위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훔쳤습니다. 이 구절에는 그들이 십일조를 내고,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개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여 너희의 모든 재산과 생활을 빼앗아 갔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건축을 시작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는지 보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십일조를 충실히 바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적용 문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우뚝서는 모세언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 언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축복을 주겠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약속과 나를 시험하여 너희에게 축복하고 나의 모든 풍성한 축복과 형통을 너희에게 부어 주겠다는 생각은 모세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인 언약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바치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일반적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유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향유와 관련된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구체적인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할 때 종종 재정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그것을 존중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번영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에서 오는 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특히 번영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받아들이고 남용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재정적 안정과 풍요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신을 시험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세 언약 아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구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때로는 목사로서도 사람들에게 기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부를 적용해야 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일조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개념이며, 여기서 이스라엘이 실행하는 십일조는 모세 율법에 의해 규제되고 규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일조를 원칙으로 계속 실천해야 하는지 여부는 논쟁하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신약성서는 은혜를 베푸는 개념을 더 강조할 것이며 십일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측정하는 것이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주의하세요.

십일조를 창고에 가져간다는 개념은 여기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그들이 수확물과 십일조를 성전에 바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헌금을 지역 교회에 드려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기부에 관한 원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라는 영적 훈련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세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율법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신실한 목사들과 번영 신학자들조차도 이 구절이 말하는 내용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논쟁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오만함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이 나에게 가혹한 말을 했고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였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가치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행악자는 형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피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도전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피곤하게 하여 나를 대적하여 이런 가혹한 말을 하였느니라 이제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마지막 예는 이 직후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막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메시지를 설교한 후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전체의 몫이 아니었고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없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하여 기념책에 기록되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배도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남은 자들에게 복을 주는 방식과 악인을 심판하는 방식을 너희가 보면 의인과 악인과 의인과 의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와 그러므로 포로 생활 이후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것이며, 그들은 결국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이사도서 전체를 통해 계속 노력해 왔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즉 이러한 제한적인 회개의 예는 온전한 보답,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응답하고, 기념책에 기록되어 궁극적으로 4장에서 일어날 최후의 회복을 바라보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환 너머에 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이맘때에 하나님이 다시 악인을 정결케 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심판하실 때에 너희 중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병을 고치겠고 의의 아들이 그 날개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송아지처럼 뛰놀며 나가서 악인을 밟을 것은 그들이 네 발바닥 아래 재와 같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4장 5절에서 하나님은 종말론적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것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전념하십니다.

12장에서는 회개해야 할 필요성,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래에 종말론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올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약속으로 끝맺습니다. . 더 이상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의로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 시리즈를 하기 위해 소선지서에 대해 가르칠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듣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의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중요성은 이 단어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킨다는 사실에 반영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12장을 계속 읽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일부로 연구하면서 그 메시지로 격려와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12장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에 대한 그의 마지막 세션인 30번째 세션입니다.